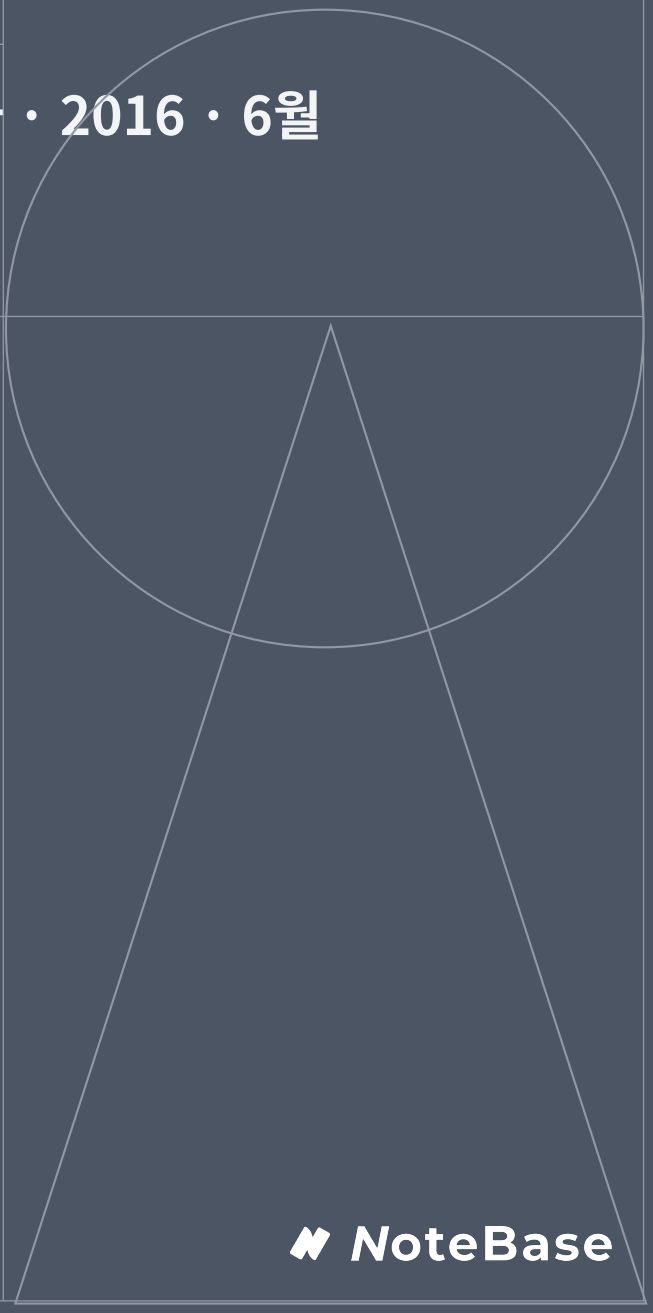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문 1. 조선 후기 중인층과 서얼은 자신들의 기록물을 남겼다. 이에 해당하는 저술만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연조귀감(掾曹龜鑑) - 방경각외전(放瓊閣外傳)

② 지봉유설(芝峯類說) - 호산외기(壺山外記)

③ 풍요삼선(風謠三選) - 의산문답(醫山問答)

④ 규사(葵史) -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후기 중인층과 서얼이 남긴 대표 기록물의 성격을 다른 실학서·문집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조선 후기 중인층과 서얼은 자신들의 처지와 활동을 드러내는 기록물을 남겼다.
규사는 서얼과 관련된 사실을 모은 역사서이다.
연조귀감·호산외기·이향견문록은 중인층이나 이항인의 현실과 인물을 기록한 저술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지봉유설은 이수광의 유서이고, 의산문답은 홍대용의 실학 사상서이며, 방경각외전은 박지원의 한문 산문·전기 작품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연조귀감은 중인층의 역사서로 볼 수 있지만, 방경각외전은 박지원이 지은 작품집이므로 중인층·서얼의 자기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방경각외전'이며, 올바르게는 규사나 이향견문록 같은 중인층·서얼 관련 기록물이 와야 한다.
② X: 호산외기는 중인층의 역사서로 분류되지만, 지봉유설은 이수광의 백과사전식 유서이므로 해당 범주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지봉유설'이며, 올바르게는 연조귀감·규사처럼 중인층·서얼의 현실을 기록한 저술이 와야 한다.
③ X: 풍요삼선은 여항인의 문학 활동과 연결해 볼 수 있으나, 의산문답은 홍대용의 실학 사상서이므로 중인층·서얼의 자기 기록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의산문답'이며, 올바르게는 규사나 이향견문록 같은 기록물이 연결되어야 한다.
④ O: 규사는 서얼의 역사와 관련 사실을 정리한 책이고, 이향견문록은 이항에 묻힌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므로 둘 다 문제에서 찾는 기록물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유명한 실학서나 문집을 중인층·서얼의 기록물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방경각외전·지봉유설·의산문답은 모두 자주 보이는 저술명이지만, 저술의 성격이 중인층·서얼의 신분적 현실을 직접 기록한 책과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제목만 외우기보다 저술의 성격부터 가르면 된다. 서얼·중인의 현실과 인물을 정리한 기록물인지, 아니면 양반 실학자의 사상서·문집·유서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좁힐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규사 = 서얼사, 이향견문록 = 이항 인물 기록이다.

NoteBase

문 2.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3개의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며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다.

② 중앙과 지방에 각각 9서당과 10정을 두었으며 10정에 편제된 보병이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었다.

③ 지방 세력을 제도적으로 통제·감시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주에 머물게 하는 사심관제를 실시하였다.

④ 진골만을 위한 관리 등용 제도로 『춘추좌전』, 『논어』, 『효경』 등 유학적 견식을 파악하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통일 신라의 중앙 관부 체계, 군제, 지방 통제 방식, 독서삼품과의 성격을 고려 제도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앙 관부 체계: 통일 신라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13관부가 기능별로 나뉘어 운영되었고, 각 관부의 장관을 여러 명 두는 경우가 많았다.
군제: 9서당은 중앙군이고 10정은 지방군이다.
지방 통제: 통일 신라는 지방 세력을 경주에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두었고, 사심관제는 고려의 제도이다.
관리 등용: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 시행된 유교 경전 이해 수준 평가 제도이며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주로 6두품 계열의 진출 통로로 거론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통일 신라의 중앙 행정은 집사부를 중심으로 13관부가 병렬적으로 설치된 형태였고, 각 부의 장관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인 경우가 많았다. 통일 신라 중앙 관부 체계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선지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10정에 편제된 보병이 군사력의 핵심"이다. 통일 신라에서 9서당은 중앙군이고 10정은 지방군이므로 군사력의 핵심은 9서당이었다. 올바르게는 중앙에 9서당, 지방에 10정을 두었으며 9서당이 군사력의 중심을 이루었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심관제"이다. 지방 세력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하여 통제한 제도는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이다. 사심관제는 고려 태조가 지방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진골만을 위한"이다.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려 한 제도이지만, 진골만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올바르게는 골품제의 한계 속에서 주로 6두품 계열의 유학적 소양을 평가한 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9서당과 10정의 배치를 알고 있어도 어느 쪽이 중앙군의 핵심인지 헷갈리면 틀리기 쉽다. ③은 지방 세력 통제라는 공통점 때문에 상수리와 사심관을 섞기 쉽고, ④는 독서삼품과와 골품제를 함께 떠올리다가 적용 대상을 진골로 잘못 좁히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일 신라 통치 체제 문제는 중앙 관부, 군제, 지방 통제, 인재 선발 제도를 각각 왕조별 대표 제도와 연결해 판단한다. 9서당은 중앙군, 10정은 지방군, 상수리는 신라, 사심관은 고려로 먼저 갈라 놓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통일 신라 = 13관부, 9서당·10정, 상수리, 독서삼품과 / 고려 = 사심관이다.

NoteBase

문 3. 강화도 조약 이후 외국에 파견된 시찰단 (가)~(라)를 파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박정양 등의 조사 시찰단
(나) 김홍집 등의 2차 수신사
(다) 민영익 등의 보빙사
(라) 김윤식 등의 영선사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가) - (라) - (다)
③ (나) - (라) - (가) - (다)
④ (나) - (라) - (다) - (가)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해외 시찰단의 파견 순서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김홍집 등의 2차 수신사 - 1880년에 일본에 파견되어 개화 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가) 박정양 등의 조사 시찰단 - 1881년에 일본에 파견되어 근대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였다.
3. (라) 김윤식 등의 영선사 - 1881년에 청에 파견되어 무기 제조 기술과 근대 군사 기술을 배우려 하였다.
4. (다) 민영익 등의 보빙사 -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되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뒤 외교 관계를 다졌다.

왜 이 순서: 2차 수신사가 1880년으로 가장 이르고,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는 모두 1881년이지만 조사 시찰단이 먼저 파견되었으며, 보빙사는 1883년이라 가장 늦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다) 보빙사를 (라) 영선사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보빙사는 1883년 미국 파견이고, 영선사는 1881년 청 파견이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라) - (다)이다.
② O - 2차 수신사(1880) 이후 조사 시찰단(1881), 영선사(1881), 보빙사(1883) 순서이므로 옳다.
③ X - (라) 영선사를 (가) 조사 시찰단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조사 시찰단은 1881년 4월부터 일본에 파견되었고, 영선사는 그 뒤 1881년에 청에 파견되었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라) - (다)이다.
④ X - (라) 영선사를 (가) 조사 시찰단보다 앞세웠고, (다) 보빙사를 (가)보다 앞세운 점도 틀리다. 보빙사는 1883년이므로 1881년의 조사 시찰단 뒤에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라) - (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881년에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가 모두 파견되었다는 점 때문에 두 사건의 선후가 자주 뒤섞인다. 또한 보빙사를 개화 정책 초기에 함께 외우면 1883년이라는 시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화기 사절 파견 순서 문제는 먼저 연도를 붙여 판단하면 정리가 쉽다. 1880년 수신사, 1881년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 1883년 보빙사처럼 연도축을 세운 뒤 같은 해 사건끼리만 세부 선후를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수신사 1880 → 조사 시찰단·영선사 1881 → 보빙사 1883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4. 다음의 글을 쓴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라 · 고구려 ·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솥발처럼 대립하면서 예를 갖추어 중국과 교통하였으므로, 범엽(范曄)의 『한서(漢書)』나 송기(宋祁)의 『당서(唐書)』에 모두 열전(列傳)을 두었는데, 중국의 일만을 자세히 기록하고 외국의 일은 간략히 하여 갖추어 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고기(古記)라는 것은 글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적(事跡)이 누락되어 있어서, 임금된 이의 선함과 악함, 신하된 이의 충성과 사특함, 나라의 평안과 위기, 백성들의 다스려짐과 혼란스러움 등을 모두 드러내어 경계로 삼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기>

ㄱ. 윤관이 북방의 거란족을 몰아내고 동북 지역에 9성을 세웠다.

ㄴ.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 15개조의 유신령이 발표되었다.

ㄷ. 분청사기가 유행할 정도로 화려한 문벌귀족 문화를 꽃피웠다.

ㄹ. 예종과 인종은 관학 부흥에 힘쓰고 유학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을 단서로 글쓴이의 활동 시기를 고려 인종 대로 파악하고, 그 시기의 정치·문화 사실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제시문은 기존 고기의 한계를 비판하며 삼국의 역사를 새로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의 서문에 해당한다.

김부식은 고려 인종 때 활동한 문벌 귀족으로, 이 시기는 이자겸의 난 이후 개혁 논의가 전개되고 관학과 유학 진흥이 이어진 시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려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거란족'이다. 올바르게는 윤관이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9성을 쌓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ㄱ과 ㄷ이 들어 있어 오답이다. ㄱ의 '거란족'은 '여진족'으로 고쳐야 한다. ㄷ의 '분청사기'도 틀린 표현이며, 고려 문벌 귀족 문화의 대표 도자는 청자와 상감청자이다.
③ O: ㄴ과 ㄹ은 모두 맞다. 인종은 이자겸의 난 이후 15개조의 유신령을 발표하여 정치 쇄신을 도모하였다. 또한 예종과 인종은 관학을 정비하고 유학 진흥을 추진하였다.
④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려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분청사기'이다. 올바르게는 고려 문벌 귀족 사회에서 청자를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윤관의 대상 민족을 거란으로 바꾸거나, 고려 문벌 귀족 문화를 분청사기와 연결하면 시대가 어긋난다. 동북 9성은 여진 정벌과 연결되고,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의 도자 문화이므로 고려 인종 대와 맞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서 편찬의 필요성을 말하며 기존 고기의 한계를 비판하는 글이 나오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이후 선지는 고려 인종 전후의 사건과 고려 전기 귀족 문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김부식-「삼국사기」-고려 인종, 윤관-여진-동북 9성, 고려 문벌 귀족 문화-청자이다.

NoteBase

문 5. 다음과 같은 군사 제도를 두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에는 응양군과 용호군, 그리고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천우위, 감문위 등을 두어 국왕 호위, 수도 경비, 국경 방어, 경찰, 의장, 궁성과 도성문 수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① 장군들로 구성된 장군방, 상장군·대장군들로 구성된 중방이라는 합좌 기관이 있었다.

② 중앙군으로 10위를 두고 그 밑에 지방군이 있었다.

③ 다섯 군단으로 구성된 중앙군이 있었고 지방의 육군은 진관체제로 편성하였다.

④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로 나누어 훈련시켜 군사의 전문적 기능을 높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의 중앙군 체제인 2군 6위를 다른 시대의 군사 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다. 2군은 응양군·용호군이고, 6위는
좌우위·신호위·흥위위·금오위·천우위·감문위이다. 국왕 호위, 수도 경비, 국경 방어를 맡았다.
중방·장군방은 고려의 군사 회의 기구이다. 중방은 상장군·대장군, 장군방은 장군들로 구성되었다.
오위·진관체제는 조선 전기의 군사 제도이고, 삼수병은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응양군·용호군과 6위를 언급하므로 고려의 2군 6위이다. 고려에는 장군들로 구성된 장군방과 상장군·대장군으로 구성된 중방이 있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두고'이다. 고려의 중앙군은 10위가 아니라 2군 6위이다.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편성되었다.

③ X
틀린 부분은 '다섯 군단'과 '진관체제'이다. 이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 전기의 군사 제도이다. 올바르게는 조선이 중앙군으로 5위를 두고 지방군을 진관 체제로 편성하였다.

④ X
틀린 부분은 '포수·사수·살수의 삼수'이다. 이는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서 전문 병종을 운영한 방식이다. 고려의 2군 6위와는 다른 시기의 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고려의 2군 6위를 조선의 오위·진관체제나 훈련도감 삼수병과 섞어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출제자는 서로 다른 시대의 군사 제도를 한 문항에 섞어 놓고 구별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응양군·용호군과 좌우위 이하 6위가 보이면 고려의 2군 6위를 먼저 떠올린다. 이후 고려는 중방·장군방, 조선 전기는 오위·진관체제, 조선 후기는 훈련도감·삼수병으로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려는 2군 6위와 중방·장군방, 조선 전기는 오위·진관체제, 조선 후기는 훈련도감 삼수병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5세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병권을 장악하고 상대등을 두었다.

② 영양왕은 온달 장군을 보내 한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③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④ 개로왕은 중국 북조의 위(魏)에 사신을 보내 군사 원조를 청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의 왕과 주요 사건을 연결한 뒤, 그 사건이 5세기에 해당하는지를 시기로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법흥왕은 신라의 율령 반포,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 등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 왕이지만 활동 시기는 6세기이다.
영양왕은 고구려의 수 문제·수 양제 침입에 대응한 왕으로, 온달의 한강 유역 회복 시도도 6세기 말의 일이다.
성왕은 백제의 사비 천도와 국호 남부여 사용으로 대표되며, 이 역시 6세기 사건이다.
개로왕은 5세기 백제 왕으로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압박을 알리고 군사 원조를 청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하고 상대등을 둔 것은 맞지만, 법흥왕의 재위와 해당 정비는 6세기 초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5세기에 있었다고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6세기에 있었던 사실이다.

② X
영양왕이 온달을 보내 한강 유역 회복을 시도한 일은 고구려의 대외 항쟁기와 연결되는 6세기 말의 사실이다. 틀린 표현은 5세기 사건처럼 제시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6세기 영양왕 때의 일이다.

③ X
성왕의 사비 천도와 국호 남부여 사용은 백제 중흥 정책으로 538년에 이루어졌다. 틀린 표현은 5세기에 있었다고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6세기 성왕 때의 사실이다.

④ O
개로왕은 5세기 백제 왕으로,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북조의 위에 사신을 보내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북위에 사신을 보내 원조를 청한 일은 5세기 사실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내용 자체만 보면 ①, ②, ③도 모두 익숙한 역사 사실이어서 맞는 문장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몇 세기인지까지 함께 묻는다. 법흥왕, 영양왕, 성왕 관련 사건은 모두 6세기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 구분 문제는 왕 이름과 업적을 바로 연결한 뒤 세기까지 함께 붙여서 판단한다. 5세기 백제는 개로왕의 북위 외교, 6세기 신라는 법흥왕의 체제 정비, 6세기 백제는 성왕의 사비 천도처럼 왕별 대표 사건을 세기와 묶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5세기 백제 개로왕은 북위 외교, 6세기 신라 법흥왕은 병부·상대등, 6세기 백제 성왕은 사비 천도이다.

NoteBase

문 7. 다음은 고려 시대의 어떤 기구에 대한 기록이다. 밑줄 친 시기에 이 기구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왕명을 받아 글을 짓는 기관이다. 태조 때 태봉의 제도에 따라 원봉성을 두었고, 뒤에 학사원으로 고쳤다. 문종 때 학사승지 1인을 두고 정3품으로 삼았고, 학사는 2인을 두고 정4품으로 삼았다. 충렬왕 원년에 다시 문한서로 고쳤다.
- 『고려사』 76, 백관지 1, 예문관 -

① 한림원
② 홍문관
③ 전중성
④ 비서성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문한 기관이 시대에 따라 원봉성, 학사원, 한림원, 문한서로 바뀌는 흐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한림원은 고려의 문한 기관으로 왕명을 받아 글을 짓는 일을 맡았다. 키워드는 학사승지와 학사이다.
홍문관은 조선의 경연·자문·문한 기관이다. 키워드는 조선 성종 이후이다.
전중성은 고려 전기 왕의 의식과 종실 보첩을 맡은 관청이다. 키워드는 궁중 시봉이다.
비서성은 고려의 경적과 축소를 맡은 관청이다. 키워드는 서적과 문서 관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밑줄 친 문종 때의 명칭은 한림원이다. 제시문에 학사승지 1인과 학사 2인을 두었다고 하였으므로 학사원이 한림원으로 바뀐 시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2번 X: 홍문관은 조선의 경연·자문·문한 기관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고려 문종 대의 기구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조선 성종 대 이후의 문한 기관이다.
3번 X: 전중성은 고려 전기 왕의 의식과 종실 보첩을 맡은 관청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왕명을 받아 글을 짓는 문한 기관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궁중 시봉과 종실 관련 업무를 맡은 관청이다.
4번 X: 비서성은 고려에서 경적과 축소를 맡은 관청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문종 대 왕명 제찬 기관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서적과 문서 계통의 업무를 맡은 관청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관 이름만 외우면 홍문관이나 비서성처럼 익숙한 명칭에 끌리기 쉽다. 이 문제는 명칭보다 기능과 시대를 함께 연결해야 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관청 사료가 나오면 먼저 시대를 잡고, 다음으로 업무가 왕명 제찬인지, 궁중 시봉인지, 서적 관리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학사승지와 학사가 보이면 한림원을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려 문한 기관은 원봉성에서 시작하여 학사원, 한림원, 문한서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8. 다음의 발기문이 발표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독립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①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②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민족단일당을 지향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④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를 보고 이 운동이 전개된 1920년대 초의 시기를 잡은 뒤, 다른 독립 운동의 연도를 비교해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국산품 애용과 민족 자본 육성을 내세운 경제적 민족 운동이다.
신간회는 1927년에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민족 단일당을 지향하며 결성된 대표적 민족 협동 전선 단체이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1909년,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1932년, 한국 광복군 창설은 1940년이므로 물산 장려 운동과의 시기 차이를 연도로 비교하면 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1909년의 사실이다.
틀린 부분은 이 사건을 물산 장려 운동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운동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물산 장려 운동과 더 가까운 시기의 독립 운동은 1927년의 신간회 결성이다.

② O
신간회는 1927년에 결성되었고, 기회주의 배격과 민족 단일당의 추진을 내세웠다.
물산 장려 운동이 1920년대 초에 전개되었으므로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시기가 가장 가깝다.

③ X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것은 1940년의 사실이다.
틀린 부분은 이 사건이 물산 장려 운동의 시기와 가장 가깝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한국 광복군 창설은 1940년으로 시기 차이가 크고, 더 가까운 것은 1927년의 신간회 결성이다.

④ X
윤봉길이 1932년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한 것은 사실이다.
틀린 부분은 이 사건을 가장 가까운 시기의 운동으로 고른 점이다.
올바르게는 1932년보다 1927년이 물산 장려 운동의 시기와 더 가깝기 때문에 신간회 결성이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 속 구호만 보고 물산 장려 운동을 떠올리지 못하면 유명한 의거인 ④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사건의 유명세가 아니라 기준 시점이 되는 운동을 먼저 잡고 연도를 비교하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호나 기관이 나오면 먼저 해당 운동을 특정하고 기준 연대를 확정한다. 그다음 각 선지의 사건 연도를 대입해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물산 장려 운동 1920년대 초, 신간회 1927, 윤봉길 1932, 한국 광복군 1940의 흐름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9.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발해의 영광탑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다.
ㄴ.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ㄷ.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주자감을 설치하고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ㄹ. 전체 인구 구성 가운데 옛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해의 문화, 대외 교류, 교육 제도, 주민 구성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광탑은 발해의 대표적 불교 문화유산으로, 고구려식 석탑이 아니라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모방 석탑이다.
발해는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 외교와 교역을 전개하였고, 귀족 자제 교육을 위해 주자감을 두어 유학을 가르쳤다.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계가 중심이었지만 주민 다수는 말갈계가 많았으므로 인구 구성에서 고구려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잘못된 묶음이다.
ㄱ의 틀린 부분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라는 표현이다. 영광탑은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모방 석탑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묶음은 옳은 보기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X
ㄱ과 ㄹ이 모두 틀렸으므로 잘못된 묶음이다.
ㄱ은 영광탑의 양식을 잘못 연결한 것이고, ㄹ의 틀린 부분은 '옛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이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말갈계 주민이 다수를 이루었다.
올바르게는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계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③ O
ㄴ과 ㄷ은 모두 옳다.
ㄴ은 발해가 일본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외교와 교역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으로 맞다.
ㄷ은 발해가 주자감을 설치하여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교육하였다는 내용으로 맞다.
따라서 옳은 것만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으므로 잘못된 묶음이다.
ㄹ의 틀린 부분은 '옛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말갈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구려계는 지배층의 성격이 강하였다.

오답 포인트

발해를 고구려 계승 국가로 기억하고 있으면 문화와 지배층의 성격을 주민 전체 구성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영광탑처럼 발해 문화재를 보면 곧바로 고구려식이라고 연결하기 쉬운데, 이 문항은 그 지점을 함정으로 만든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 문제에서는 고구려 계승 의식, 당 문화 수용, 말갈과의 구성 관계를 따로 나누어 본다. 문화재 양식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지 따지고, 주민 구성은 지배층과 다수 주민을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발해는 일본과 교역, 주자감 설치, 주민 다수는 말갈, 영광탑은 당 영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0. 다음의 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악 해수 다 찡기는 듯
무궁화 삼천리가 이미 영락되다니
가을 밤 등불 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승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정히 어렵구나.

① 일본은 영일동맹, 태프트-가쓰라 각서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하여 각각 영국, 미국,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았다.

② 일본은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가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면서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황제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였다.

③ 일본은 국가의 법령 제정, 중요 행정처분, 고등 관리의 임명에 대해 통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④ 육군 대신 데라우치는 2천여 명의 헌병을 데리고 들어와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순종에게 양위의 조서를 내리도록 강요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황현의 절명시를 단서로 한일 병합 전후 대한제국 국권 침탈 과정의 여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이고, 정미7조약은 내정 전반을 통감부가 통제하게 한 사건이며, 고종 강제 퇴위는 황제권을 무너뜨려 병합으로 가는 길을 연 사건이다.
한일 병합은 1910년 국권이 완전히 박탈된 사건으로, 황현의 절명시는 이 경술국치를 통탄하며 남긴 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영일 동맹, 태프트-가쓰라 각서,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이 한국 지배에 대한 국제적 묵인을 확보해 가는 외교적 배경이다. 틀린 부분은 이 내용을 시의 직접 관련 사건으로 잡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을사늑약과 그 배경을 설명한 선지로 보는 것이 맞다.

② X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고종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한 것은 을사늑약 체결 과정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황현의 절명시가 직접 겨냥한 사건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1905년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국가의 법령 제정, 중요 행정 처분, 고등 관리 임명에 통감의 간섭을 받게 한 것은 정미7조약의 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가 경술국치 자체의 설명인 것처럼 연결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한 내용이다.

④ O
데라우치를 앞세운 일본은 헌병 경찰 체제를 강화하고 황실의 권한을 짓눌러 대한제국의 주권을 해체해 갔다. 고종 강제 퇴위와 순종 즉위 강요는 한일 병합으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였으므로, 제시된 시가 통탄한 국권 피탈 과정과 가장 가깝다.

오답 포인트

을사늑약, 정미7조약, 고종 강제 퇴위, 한일 병합은 모두 대한제국 침탈 과정에 연속해서 나타나므로 시기와 침탈 대상이 자주 섞인다. 외교권 박탈인지, 내정 장악인지, 황제권 박탈인지, 국권 완전 상실인지를 나누어 보면 선지가 정리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사 침탈 과정 문제는 먼저 제시문이 가리키는 최종 사건을 잡고, 각 선지가 외교권 박탈, 내정 간섭, 황제 강제 퇴위, 국권 피탈 중 어느 단계인지를 대응시키면 된다. 황현의 절명시는 1910년 경술국치를 가리키므로 그 직전까지의 병탄 과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 정미7조약은 내정 장악, 고종 강제 퇴위는 황제권 박탈, 한일 병합은 국권 상실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에게 민족 의식과 독립사상 고취
2.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 운동 역량 축적
3. 상공업 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富力) 증진
4. 교육 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

① 평양에 대성학교,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② 평양 근교에 자기(磁器) 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도 하였다.

③ 평양과 대구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출판 사업을 벌였다.

④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에 정치 집회가 금지되면서 해산당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민회의 강령과 구체적 활동을 다른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의 활동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신민회는 1907년에 조직된 비밀 결사로, 민족 의식 고취와 독립 사상 확산, 민족 교육 진흥, 민족 산업 육성을 통해 국권 회복의 실력을 기르려 한 단체이다.
대표 활동으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설립, 자기회사와 태극서관 운영, 대한매일신보를 통한 계몽 활동,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추진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민회는 민족 교육을 위해 평양에 대성학교,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 교육 구국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O: 신민회는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 평양 근교에 자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③ O: 신민회는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출판과 계몽 활동을 벌였다. 태극서관은 평양에서 운영되었고 서울·대구 등 주요 도시로 확대가 추진되었다.
④ X: 틀린 부분은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에 정치 집회가 금지되면서 해산당했다'이다. 이는 헌정연구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신민회는 비밀 결사로 활동하다가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큰 탄압을 받으며 사실상 해체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신민회와 헌정연구회의 해산 배경을 바꿔 넣은 선지이다. 신민회는 비밀 결사라는 점이 핵심이고, 통감부 설치 직후 정치 활동 금지로 해산된 단체는 헌정연구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성학교·오산학교, 자기회사·태극서관, 비밀 결사라는 연결고리가 보이면 신민회로 판단한다. 반대로 통감부 설치 직후 정치 활동 금지로 해산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헌정연구회를 먼저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신민회 = 비밀 결사 + 대성학교·오산학교 + 자기회사·태극서관 + 105인 사건이다.

NoteBase

문 12. 조선 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과의 소과에는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과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생원과가 있었다.

② 소과의 1차 시험인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 인원을 배분하였다.

③ 소과 합격 증서를 백패, 대과 합격 증서를 홍패라 하였다.

④ 무과에는 서얼도 응시가 가능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시대 과거제의 소과·대과 구성, 생원과와 진사과의 성격, 무과의 응시 자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원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진사과는 시·부·표·책 등 문예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이루어졌고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주었으며,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주었다.
무과는 문과보다 신분 제약이 약하여 서얼도 응시할 수 있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과"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생원과"이다. 실제로는 생원과가 경학 중심이고, 진사과가 문예 능력 중심이다.
② O: 소과의 1차 시험인 초시는 각 도에 정원을 배정하여 선발하였고, 그 인원은 각 도의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나누었다.
③ O: 소과 합격 증서는 백패이고, 대과 합격 증서는 홍패이다. 소과와 대과의 급제 증서를 구분하는 기본 사항이다.
④ O: 무과는 문과보다 응시 자격의 신분 제한이 약하여 서얼도 응시할 수 있었다. 문과에 제약이 있던 계층이 무과에는 진출할 수 있었다.

오답 포인트

생원과와 진사과의 기능을 서로 뒤바꾸어 제시하는 함정이다. 경학은 생원과, 문예는 진사과라는 대응을 바꾸어 읽으면 ①을 옳은 설명으로 착각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거제 선지가 나오면 먼저 소과의 두 갈래를 구분한다. 경전 이해를 묻는 시험이면 생원과이고, 시·부 등 문예 능력을 묻는 시험이면 진사과이다. 이어서 소과는 백패, 대과는 홍패로 연결하면 정오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생원은 경전, 진사는 문예, 소과는 백패, 대과는 홍패이다.

NoteBase

문 13.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대통령 선거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가 당선되었다.

②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③ 1978년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였다.

④ 1972년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 신민당 후보로 김대중이 출마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70년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실시 연도, 선거 방식, 당선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은 직접 선거이다. 1972년 유신 헌법 이후의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바뀌어 통일주체국민회의나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1979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박정희 사망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인물이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② O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졌으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③ O
197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유신 체제 아래 경쟁 후보 없이 치러진 선거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1972년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박정희, 신민당 후보로 김대중이 출마하였다'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은 것은 1972년이 아니라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이다. 1972년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유신 헌법 아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러진 간선제 선거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971년 선거와 1972년 선거를 이어서 외우면 박정희-김대중 대결 구도가 1972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1972년은 유신 체제 성립 이후라 선거 방식 자체가 직접 선거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이 보이면 먼저 1971년 직접 선거인지 확인한다. 1972년 이후가 나오면 유신 체제의 간선제 선거로 전환되었다는 점부터 대입하면 선지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박정희-김대중 대결은 1971년, 유신 이후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이다.

NoteBase

문 14. 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연암 박지원은 한전론(限田論)을 제안하였는데,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면 토지 소유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ㄴ. 풍석 서유구는 둔전론(屯田論)을 주장하였는데, 소농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주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ㄷ. 다산 정약용은 정전론(井田論)을 제시하였는데, 구획이 가능한 곳은 정자(井字)로, 불가능한 곳은 계산상으로 구획한 뒤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ㄹ. 성호 이익은 농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매 호마다 영업전(永業田)을 갖게 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균등을 이루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론을 인물별 대표 주장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박지원: 한전론 -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 대토지 소유와 토지 겸병을 억제하려는 주장이다.
서유구: 둔전론 - 둔전을 설치해 농업 생산과 재정을 보완하려는 현실적 개혁론이지, 지주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주장은 아니다.
정약용: 정전론 - 정자형 구획이 가능하면 정전 형태로 나누고, 불가능하면 계산상으로 구획하여 경작하게 하려는 구상이다.
이익: 한전론 - 매 호에 영업전을 보장하고 그 영업전의 매매를 제한하여 자영농의 기반을 지키려는 주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전체 조합은 옳지 않다.
틀린 부분은 ㄴ의 "둔전론을 주장하였는데, 소농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주제도 철폐를 해야 한다"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서유구는 둔전론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둔전 설치를 통한 생산력 증대와 재정 보완을 노린 현실적 방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② X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ㄷ이 빠져 있어 전체 조합이 맞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ㄴ을 옳은 설명으로 넣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②의 ㄴ을 빼고 ㄷ을 넣은 ㄱ, ㄷ, ㄹ의 조합이 맞다.

③ O
ㄱ, ㄷ, ㄹ은 모두 옳다.
ㄱ의 박지원은 토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ㄷ의 정약용은 정전론에서 정자형 구획과 계산상 구획을 말하며 토지 분배 구상을 제시하였다.
ㄹ의 이익은 매 호의 영업전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의 생업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④ X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전체 조합이 맞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ㄴ을 포함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④의 ㄴ을 ㄱ으로 바꾼 ㄱ, ㄷ, ㄹ이 정답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토지 개혁론 이름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특히 박지원과 이익은 모두 한전론과 연결되므로 하나는 상한선, 다른 하나는 영업전이라는 핵심어로 구분해야 한다. 또 서유구의 둔전론을 급진적인 지주제 철폐론으로 바꾸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주장과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이름이 보이면 먼저 대표 연결어를 붙여서 판단한다. 박지원은 상한선, 이익은 영업전, 정약용은 정자와 계산상 구획, 서유구는 둔전으로 묶으면 된다. 그다음 각 진술의 O/X를 가른 뒤 조합형 선택지에서 틀린 진술이 들어간 번호를 소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박지원은 상한선의 한전론, 이익은 영업전의 한전론, 정약용은 정자의 정전론, 서유구는 둔전론이다.

NoteBase

문 15.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내용 중 동학 농민군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삼사 언론기관 폐지
ㄴ. 과부의 재가 허용
ㄷ. 공·사 노비법 혁파
ㄹ. 중국연호 폐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 요구가 제1차 갑오개혁 조치에 반영된 항목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학 농민군은 신분 차별 철폐와 사회 개혁을 요구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과부의 재가 허용과 노비 제도 폐지 같은 조치와 직접 연결된다.
반면 삼사 언론기관 폐지와 중국 연호 폐지는 정치 제도 개편과 자주성 표방에 관한 조치로, 동학 농민군의 대표적 폐정 개혁 요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 ㄴ은 동학 농민군의 요구와 관련이 깊다. 청춘과부의 재가 허용은 폐정 개혁안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
- 그러나 ㄱ은 삼사 언론기관 폐지로, 조선의 정치 기구를 정비한 갑오개혁 조치일 뿐 동학 농민군의 직접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 틀린 부분은 ㄱ을 함께 고른 점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2번 X
- ㄷ은 공사 노비법 혁파로, 노비 제도 폐지라는 점에서 동학 농민군의 반봉건 요구와 연결된다.
- 그러나 ㄱ은 동학 농민군의 주장과 직접 관련된 사회 개혁 조항이 아니다.
- 틀린 부분은 ㄱ을 포함하고 ㄴ을 빠뜨린 점이다. 올바르게는 ㄴ, ㄷ을 골라야 한다.

3번 O
- ㄴ 과부의 재가 허용은 동학 농민군이 요구한 사회 개혁과 연결된다.
- ㄷ 공사 노비법 혁파도 신분 제도 타파라는 점에서 동학 농민군의 주장과 관련이 깊다.
- 따라서 동학 농민군의 요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ㄴ, ㄷ이다.

4번 X
- ㄷ은 맞지만 ㄹ은 중국 연호 폐지이다. 이는 청에 대한 사대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드러낸 조치이다.
- ㄹ은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과 직접 연결되는 요구가 아니다.
- 틀린 부분은 ㄹ을 넣고 ㄴ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동학 농민군의 직접 요구와 갑오개혁 전체 조치를 구분하지 못하면 ㄱ이나 ㄹ까지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갑오개혁에 포함된 조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동학 농민군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치를 묻기 때문에 사회 개혁과 신분 개혁 성격의 항목을 우선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학 농민군 관련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폐정 개혁안의 핵심인 반봉건, 신분 차별 철폐, 사회 개혁 요구를 먼저 떠올린다. 과부 재가 허용과 노비 제도 폐지처럼 사회 질서 개혁 조치는 연결하고, 관제 개편이나 대외 자주성 조치는 우선 배제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동학 농민군 폐정 개혁안은 신분제 타파와 사회 개혁이다. 과부 재가 허용과 노비 제도 폐지가 대표 항목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내용이 포함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1.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세사미두(歲賜米豆)는 100석으로 한다.
1.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은 20척으로 한다.
1. 왜관의 체류 시일은 대마도주가 특별히 보낸 사람은 110일, 기타 세견선은 85일이고, 표류인 등을 송환할 때는 55일로 한다.

① 기유약조
② 임신약조
③ 정미약조
④ 계해약조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약조를 세사미두, 세견선 수, 왜관 체류 일수라는 핵심 수치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사미두가 100석인지 200석인지 확인한다.
2. 세견선이 20척인지 25척인지 50척인지 확인한다.
3. 왜관 체류 일수 110일·85일·55일처럼 특정 약조만 가진 단서를 찾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시문에는 세사미두 100석, 세견선 20척, 왜관 체류 시일 110일·85일·55일이 나온다. 이는 1609년에 체결된 기유약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2번: X. 임신약조는 삼포왜란 이후 체결되었고 세견선은 25척, 세사미두는 100석으로 줄였다. 제시문의 "세견선 20척"과 왜관 체류 일수 규정은 임신약조가 아니라 기유약조의 내용이다.
3번: X. 정미약조는 사량진왜변 뒤 체결되었고 세견선은 25척으로 규제하였다. 제시문의 핵심 단서인 "세견선 20척"과 "왜관 체류 110일·85일·55일"은 정미약조가 아니라 기유약조에 해당한다.
4번: X. 계해약조는 조선 전기 대일 통교의 기본 약조로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을 허용하였다. 제시문의 "세사미두 100석"과 "세견선 20척"은 계해약조와 맞지 않으며, 계해약조의 체류 규정도 제시문과 다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사미두 100석만 보고 임신약조로 고르면 틀린다. 이 문항은 한 숫자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세사미두, 세견선, 왜관 체류 일수를 묶어서 대조해야 정답이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의 대일 약조는 숫자를 묶어서 판단한다. 계해약조는 50척·200석, 임신약조는 25척·100석, 기유약조는 20척·100석에 왜관 체류 일수 규정이 붙는다는 순서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계해 50·200, 임신 25·100, 기유 20·100·체류일수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우리나라의 국보와 그 제작 시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 징비록, 비변사등록, 송시열 초상

② 고려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향 초상, 상원사 동종

③ 통일신라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성덕대왕신종, 보은 법주사 석련지

④ 백제 -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 국보를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의 제작 시기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조선: 징비록, 비변사등록, 송시열 초상처럼 기록 문화와 사대부 초상화가 대표적이다.
고려: 부석사 무량수전, 안향 초상처럼 불교 건축과 유교 관련 유물이 포함된다.
통일 신라: 상원사 동종, 성덕대왕신종,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처럼 범종과 석탑이 대표적이다.
백제: 정림사지 오층석탑, 미륵사지 석탑,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처럼 세련된 불교 조형 문화가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의 전란 회고록이고, 비변사등록은 조선의 국정 운영 기록이며, 송시열 초상도 조선 유학자의 초상화이므로 모두 조선으로 묶는 것이 맞다.
2번 X: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안향 초상은 고려가 맞지만, 상원사 동종은 통일 신라 성덕왕 때 제작된 범종이다. 틀린 표현은 '고려-상원사 동종'이고, 올바르게는 '통일 신라-상원사 동종'이다.
3번 O: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성덕대왕신종, 보은 법주사 석련지는 모두 통일 신라의 불교 문화재로 보는 것이 맞다.
4번 O: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모두 백제 문화권의 대표 국보이므로 시대 연결이 맞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세 유물 가운데 두 개만 고려이기 때문에 전체가 맞는 선지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특히 상원사 동종을 고려 범종으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지만, 상원사 동종은 통일 신라 범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 연결 문제는 선지 전체를 한 번에 보지 말고 유물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판별한 뒤, 셋 중 하나라도 다른 시대가 섞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원사 동종과 성덕대왕신종은 통일 신라,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징비록과 비변사등록은 조선으로 묶인다.

NoteBase

문 18. 빈칸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은(는) 조선 총독에게 정치·경제범의 즉시 석방, 서울의 3개월 분 식량 확보, 치안 유지 등을 위한 정치 운동·학생 및 청년 활동·노동자와 농민 동원 등에 대한 불간섭 등을 요구하였다.

① 만주 길림시에서 의혈단을 조직하여 일본을 무너뜨리고 '민중적 조선'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민족 투쟁을 벌였다.

② 김규식과 함께 좌우익의 대표로서 10인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벌였다.

③ 단독정부 수립운동에 반대하며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북한에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④ 좌우 협력의 민족 운동인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조선학 운동을 통해 민족문화 수호에 앞장섰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해방 직후 건국 준비와 좌우 합작 운동에 관여한 여운형의 활동을 다른 근현대 인물들의 대표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좌우 합작 운동 - 해방 직후 치안 유지와 자주적 국가 건설을 추진한 인물이다.
김원봉: 의열단 -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하고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김구: 남북협상 -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협상에 나선 인물이다.
안재홍: 신간회, 조선학 운동 - 좌우 협력의 민족 운동과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만주 길림시에서 의열단을 조직하고 '민중적 조선' 건설을 목표로 민족 투쟁을 전개한 인물은 김원봉이다. 여운형은 의열단 조직자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의열단을 조직'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김원봉이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이다.
② O: 여운형은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며 10인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한 인물로 보는 것이 옳다. 제시문의 빈칸 인물인 여운형의 해방 직후 정치 활동과도 연결된다.
③ X: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분단 저지를 위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와 남북협상을 추진한 인물로 연결되는 것은 김구이다. 여운형의 대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빈칸 인물과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김구가 남북협상에 나섰다'이다.
④ X: 좌우 협력의 신간회 운동을 이끌고 조선학 운동을 통해 민족문화 수호에 앞장선 인물로 연결되는 것은 안재홍이다. 여운형은 신간회와 조선학 운동의 대표 인물로 묶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빈칸 인물을 신간회·조선학 운동의 대표 인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안재홍이 신간회와 조선학 운동에 참여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해방 직후 통일 정부 수립 운동,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처럼 비슷한 시대의 정치 활동이 함께 제시되어 인물이 섞이기 쉽다. 특히 ②의 여운형과 ③의 김구는 모두 분단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지향하였으나,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 남북협상은 김구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현대 인물 문제는 시대만 보지 말고 대표 키워드로 판단한다.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좌우 합작, 김원봉은 의열단, 김구는 남북협상, 안재홍은 신간회·조선학 운동으로 연결하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여운형=건국준비위원회·좌우 합작, 김원봉=의열단, 김구=남북협상, 안재홍=신간회·조선학 운동이다.

NoteBase

문 19.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의 시정 방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자 도입과 경제 원조 확대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 추진

②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아 반공 태세를 재정비·강화

③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선거에 의한 통일 달성

④ 군비 축소와 군의 정예화 추진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4·19 혁명 뒤 출범한 민주당 정부의 시정 방침과 5·16 군사 정변 세력의 혁명 공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주당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경제 개발, 한일 관계 정상화,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 감군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추진하였다. 반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아 반공 태세를 재정비·강화'는 1961년 5·16 군사 정변 세력이 발표한 혁명 공약의 핵심 문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외자 도입과 원조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바탕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것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 제일주의와 맞는다. 장면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② X
틀린 부분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아 반공 태세를 재정비·강화'이다. 이 문구는 민주당 정부의 시정 방침이 아니라 5·16 군사 정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혁명 공약이다. 올바르게는 민주당 정부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감군과 정군을 추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과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 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은 장면 정부의 대외 정책에 해당한다. 시정연설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와 유엔 감시하 총선거 방안을 밝혔다.

④ O
군비 축소와 군의 정예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는 민주당 정부가 제시한 군 개혁 방향이다. 감군으로 재정을 절약하고 군을 정예화하여 국방력 강화와 군기 확립을 함께 도모하였다.

오답 포인트

②의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라는 표현이 강한 반공 노선으로 익숙해 보여 민주당 정부 정책처럼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구는 장면 정부가 아니라 5·16 군사 정변 세력의 혁명 공약이므로 정권별 핵심 표어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권별 핵심 표어를 먼저 대조하면 풀린다. 경제 제일주의, 유엔 감시하 총선거, 감군·군 중립은 민주당 정부이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아 반공 태세를 재정비한다는 표현은 5·16 세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면 내각은 경제 제일주의·한일 회담·유엔 감시하 총선거·감군, 5·16은 반공 국시 제일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조선 시대의 한양을 설명한 것이다. (가)~(라)에 각각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한양은 통치의 중심 공간인 ((가))을 ((나)) 아래에 남향으로 짓고 그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였다. ((다))은 안산에 해당한다. 도성에는 네 개의 대문이 건설되었는데 동은 흥인지문, 서는 ((라)), 남은 숭례문, 북은 숙정문이다.

① 경복궁, 인왕산, 남산, 소의문
② 경복궁, 백악산, 남산, 돈의문
③ 창덕궁, 인왕산, 낙산, 소의문
④ 창덕궁, 백악산, 낙산, 돈의문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한양의 도성 배치에서 법궁, 주산, 안산, 4대문의 위치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자 통치의 중심 공간이다.
백악산은 경복궁 뒤쪽의 주산으로, 경복궁은 백악산 아래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남산은 한양의 안산에 해당한다.
돈의문은 한양도성의 서대문이고, 소의문은 서소문으로 4대문이 아니라 4소문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나)와 (라)가 틀리다. 경복궁은 인왕산 아래가 아니라 백악산 아래에 자리한다. 또한 서쪽의 4대문은 소의문이 아니라 돈의문이다. 소의문은 서소문으로 4소문에 속한다.
② O: 경복궁, 백악산, 남산, 돈의문의 연결이 모두 맞다. 한양은 경복궁을 백악산 아래 남향으로 두고, 남산을 안산으로 삼았으며 서대문은 돈의문이다.
③ X: (가), (나), (라)가 틀리다. 통치의 중심 공간은 창덕궁이 아니라 법궁인 경복궁이다. 경복궁 뒤의 산도 인왕산이 아니라 백악산이다. 서쪽 4대문 역시 소의문이 아니라 돈의문이다.
④ X: (가)만 틀리다. 백악산 아래에 남향으로 배치된 통치의 중심 공간은 창덕궁이 아니라 경복궁이다. 남산이 안산이고 서대문이 돈의문이라는 점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창덕궁을 조선 후기의 대표 궁궐이라는 이유로 중심 궁궐처럼 떠올리거나, 돈의문과 소의문을 모두 서쪽 문으로만 기억해 대문과 소문을 구별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양 도성 문제는 먼저 법궁이 경복궁인지 확인하고, 뒤의 주산은 백악산, 앞의 안산은 남산으로 연결한다. 그다음 4대문은 동 흥인지문, 서 돈의문, 남 숭례문, 북 숙정문으로 대문만 따로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경복궁-백악산-남산-돈의문을 한 묶음으로 기억하고, 소의문은 서소문이므로 4대문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묶어 둔다.

NoteBase